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다면
마음의 번뇌를 없애라.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20일)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토끼의 지혜로 위기 넘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불기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혜로운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세 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극복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시무식 이후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글 · 사진=신성민 기자 〈관련기사 2면〉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 추진 본격화

미래본, 오는 1월 11일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

주요 스님, 재가자 등 108명 참여
준비위 발족 후 열암곡 마애불서
도감 스님 중심으로 매일 기도회
4월 발족 예정 추진위 동력 '결집'
마애불 입불 · 명상센터 건립 등
37대 집행부 핵심 사업 추진 기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명상센터 건립 등 조계종 37대 집행부 주요 핵심 불사의 추진이 본격화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의 핵심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추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1월 11일 오후4시 서울 부암동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년을 세우다'는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을 세워서 '미래 천년'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의미한다. 이 불사에는 "천년을 세워 그 공덕으로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안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는 문화재청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3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불자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불교의 성지인 경주 남산을 알려 나가려고 한다"면서 "사찰(단체) 등 불자들을 중심으로 순례기도를 대중화시켜 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말한다. 지안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 도심과 경주 남산에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소년 등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마애불 입불과 명상센터 건립 불사의 범불교적 원력과 동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준비위 자문위원으로는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직지사 회주 법등 스님,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이 위촉되며, 준비위원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교구본사 주지, 주요 신도단체장, 문화재 전문가, 불자대상 수상자 등 108명이 참여한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단장은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과 문화부장 탄원 스님이, 미래추진단장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명상센터 건립), 상도선원 회주 미산 스님(명상센터 프로그램 자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지역불교 활성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미래세대 인재 양성)이 각각 위촉될 예정이다.

발족식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동력 결집에 들어간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발족식 다음날인 1월 12일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매일 기도회가 진행된다. 기도는 도감 본오 스님을 중심으로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범어사, 통도사 스님 1명이 기도법사로 참여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순례기도 프로그램 개발, 모연방법 등 대중사업 내용 준비, 사회 각계인사 추진위원 섭외 등도 이뤄진다. 미래본부는 이 같은 동력 결집을 통해 오는 4월 중순경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는 단순히 문화재급 마애불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불사이며, 중생구제를 실천하는 보살행이며, 불교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불사"라며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원만회향돼 중생구제 · 민족통일의 비원이 실현돼야 한다. 추진준비위 발족은 이 장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20대 총장 윤재웅 학장 선임

"건학이념 구현 위한 핵심가치 정립"

1월 5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종립대학 건학교육 강화 공약
불교교육학 이론 정립도 제시



동국대 제20대 총장에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성우)는 1월 5일 교내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74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제20대 총장 선임 안건을 논의 ·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인 윤성이 총장, 윤재웅 다르마칼리지 학장, 임중연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으며, 만장일치로 윤재웅 학장을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 윤재웅 차기 총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윤 차기 총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동국대를 법신불(法身佛)로 여기고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기 총장은 "동국대 정각원 주련에 '동국 상방 대광명'이라는 경구가 있다. 부처님께서 정각의 순간 상방 대광명을 이루셨다"며 "'동국대를 법신불로 보고 학교를 상방 대광명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차기 총장은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문학으로 석 ·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사범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동국대 전략홍보실장, 사범대 · 교육대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

윤 차기 총장은 건학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건학이념 교육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을 비전으로 국내 5위, 글로벌 100위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윤 차기 총장의 목표다.

윤 차기 총장은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불교교육학 체계 구축 △건학이념 교육 일상화 △명상교육 표준화 및 융합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대장경 사업 등 국책사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재웅 총장 당선자는 "불교교학과 현대교육학을 결합한 '불교교육학' 교육이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키려 한다"면서 "남산 걷기명상(行禪) 프로그램과 합장 · 공양기도 등을 일상화해 불교종립대학의 건학이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 BMC캠퍼스 시설을 개선하고 현 테니스장 부지에 기숙사 신축과 혜화문 일대 로터스관 착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구조혁신과 인수합병을 통해 학교 재정규모를 4000억 원대로 확장하고, 발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주도 및 확산과 미래 인재 양성 교육체계 수립, BMC 평화연구 클러스터 구축 확산 등 정부과제 사업 적극 유치를 추진하고 동문 및 범불교계 기금 모연을 위한 홍보문화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직원부총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차기 총장은 "동국대는 붓다의 지상명령으로 설립된 학교로, 붓다의 실천적 삶을 이 땅에 구현하려는 실천도량이다. 이것이 동국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의 핵심"이라면서 "불교교육학의 체계를 세우고, 현재 · 미래교육과 어떻게 상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동국교육의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화된 교육 · 경영이론을 뒤따라가면 구성원들은 기계부품처럼 마모된다. 동국대는 기능주의적 프레임에 벗어나 '마음의 향상'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2022년 회계연도 법인 중간감사 보고 및 법인 인사 보고 등이 이뤄졌다. 의결안건으로는 교원인사,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의 승인, 의료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 승인, 법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새 총장 선출 등 학교가 새롭게 구성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해 한 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이사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발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2023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 및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제13회 원효학술상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3월 3일(금)

제6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1월 25일(수) ~ 2월 24일(금)

제6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1월 25일(수) ~ 2월 17일(금)

제7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2월 20일(월) ~ 3월 17일(금)

학생 모집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
2023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3년 2월 1일 ~ 3월 7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3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3년 2월 1일~ 3월 14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강의 영상 제공함.

상세 공모 내용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